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아홉번째 글

창립 40주년에 열린 공동총회 불법, 탈법으로 얼룩져

**가드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입장도 저지
2부서는 다수의 교인들이 나가버려 계수도 못해**

지난 7월 25일은 우리 동양선교교회의 창립 40주년 기념일 이었습니다. 이 좋은날 우리는 통곡을 해야했습니다.

박석재(미국명.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여섯명의 장로들은 새벽부터 20여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동원, 본당앞 주차장을 모두 닫아버리고 한사람씩 교회로 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반대파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40여년동안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는 3부 예배 후에 공동총회를 열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가장 교인들의 수가 적은 1부 예배가 끝난 뒤에 공동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를 맡은 박석재장로가 “홍민기목사의 청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십시오”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석했던 교인들은 어리둥절했고 그 중에 용감한 교인 10여명이 자리를 떴습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앉아 있었는데 “지금 앉아계신분들은 찬성하신것으로 알고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고 선언한 뒤 회의를 마감했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박석재장로는 똑같은 솜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일부가 이를 항의,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어서라”고 말하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일어나 나가는 바람에 2부가 끝난 다음에는 그나마도 제대로 찬성 여부도 묻지못하고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영송장로 :설령탕집 아줌마, 서울서 온 노인회장, 홍목사 좋아 하더라

홍목사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 참석은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3부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광고시간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영송장로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장로는 설령탕집 아줌마와 서울서 온 노인회 회장 등이 홍민기 목사를 좋아했다면서 마치 LA바닥의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처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령탕집 아

알려드립니다. www.klifeusa.com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

해서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데 글도 쓰실 수 있습니다.

좀마나 서울서 왔다는 노인회장이 좋아하기때문에 우리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심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임목사는 우리교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외부인사의 추천으로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로는 이어 우리 교회대표가 홍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도 가 봤으며 홍목사가 설교를 하는 1만 7-8천명이 모이는 부흥회 현장에도 가 봤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대표가 갔다고 주장하는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홍목사는 그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영송장로는 교인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그것도 강대상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보낸 성도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덟번째 글은 보낸사람의 이름이 없는 투서용편지요 모함성 편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장로의 이날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서용 발언이요 모함성 발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입이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영송장로는 이날 발언도중 시종일관 입술이 탔으며 강대상 물을 연거푸 마셨지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입술이 말라 타는 것을 참석자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20여명의 시큐리티 가드 강대상에 배치로 강압분위기 조성

사진촬영 못한다, 18명은 회의 참가도 투표도 안된다 나가라

예배가 끝난 뒤 드디어 그들이 주장하는 공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시작하면서 화면에는 "허가없이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라는 경고에 이어 "다음 18명은 공동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면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찰 명단을 화면 가득히 적어 발표하면서 "사찰들은 나오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인들 중에 발언을 신청했지만 사회를 맡은 박석재장로는 "임시 공동총회는 투표만 하는 것이지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누구도 발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년전 강준민목사의 숫법, 그보다 더 악랄한 장로들의 숫법.

반대자 일어나라, 나머지는 찬성으로 인정, 통과됐다 선언

4년전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하기위해 임시공동총회를 소집했을 때 강목사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강목사의 이같은 선언으로 박석재 장로를 비롯한 장로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라철삼집사가 일어나 "발언권을 달라"고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강목사 지지자들은 그를 저지했고 몸싸움이 시작됐었습니다. 뒤 늦게 나타난 박석재를 비롯한 장로들은 라집사를 감싸면서 "발언권을 주어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목사 측은 끝까지 발언을 허락하지 않고 투표를 강행했으며 투표가 끝난 뒤 강목사는 "당회는 이순간 해산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4년 뒤인 이날, 박석재를 비롯한 장로들은 강목사와 똑같은 주장을 했고 모든 발언을 못하게 한 뒤 회의를 강행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때는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정상적인 투표를 했는데 반해 이번에는 보도 듯도 못한 방법으로 가결한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 www.klifeusa.com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데 글도 쓰실 수 있습니다.

몇명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반대 86명이라고 선포 초등학교 졸업장 선거보다 못한 한심한 공동총회

사회를 맡은 박장로는 “홍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십시요”라는 희안한 표결 방법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교인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늦게야 그 뜻을 알게 된 교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난 교인들은 전체 참석자의 3분의 2가량에 이르렀습니다. 박장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찰들이 계수했으니까 종합해서 곧 발표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그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분쯤 지나서 박장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86명입니다. 따라서 홍민기목사 청빙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간의 몇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반대한다며 일어서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요”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요”라고 묻고 그 숫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장선거에서도 사용하는 회의의 기본입니다. 이날 공동총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일어난 사람들의 숫자는 최소한 3백여명은 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석자들은 “이것은 회의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허탈해 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당회를 지원해왔던 원로 장로님들의 대부분도 “이것은 아니다”면서 심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급히 교회를 빠져 나갔습니다.

소위 홍민기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하자는 안건으로 시작된 이날의 임시공동총회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박석재를 비롯한 장로들은 모 일간신문에 “홍목사의 청빙은 찬성 710명 반대 93명으로 확정됐다”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또 이 기사에서 “임동선목사가 담임목사로 있을 때부터 후임목사를 결정할 때 이런방식으로 했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는 교인들 모두가 익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알려드립니다. www.klifeusa.com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데 글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임동선목사도 이렇게 담임목사 청빙했다며 책임전가 이런 불법총회는 지난 40년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다

첫째, 지난 40년동안 공동총회를 열 때 회의 날자와 시간, 장소 그리고 의제가 1주일 이전에 사전 공고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회시간이 없고 장소도 불분명했습니다. 광고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동총회 : 홍민기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청빙하기위한 임시 공동총회가 7/25(주)본 교회에서 있습니다"(7월 18일자 주보)

둘째, 지난 40년동안 단 한번도 공동총회를 1, 2, 3, 4, 5부 예배로 나누어 실시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에도 없는 불법입니다. 대부분 3부 예배 후에 개회했었습니다.

셋째, 지난 40년동안 청빙목사님에대한 투표는 대부분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찬반을 가렸습니다. 투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일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찬성과 반대를 묻고 반대가 없을 경우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넷째, 지난 40년동안 공동총회에서 단 한번도 찬성이건, 반대건 이번 공동총회처럼 기립하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거수로 결정했으며 이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지난 40년동안 공동총회에서 찬반이 갈릴경우 손을 들게하고 사찰이 강단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계수했으며 사회자는 계산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어주도록 요청했고 사찰들에게 계수를 완료했는지 직접 확인 했었습니다. 이날 공동총회에서는 그런 요청도 없었으며 숫자를 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미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계획된 숫자를 집어 넣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슬픈 사건, 부끄러운 사건, 통곡해야 할 뼈아픈 사건

따라서 동양선교교회는 임동선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있을 때나 원로목사로 있을 때나를 막론하고 지난 40년동안에 결코 담임목사 청빙은 물론이고 어떤 의제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동양선교교회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처리는 LA는 물론이고 미국내 거기에다 한국의 어느교회에서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임동선목사님을 비롯 20여명의 교인들에게 공갈 협박편지 공동총회 날 교회 건물은 물론 주차장에도 오지마라

지난 7월 21일,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장로 등이 주도하는 당회는 홍목사의 청방을 반대하는 20여명의 교인들에게 공갈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정영석, 안광석 시무장로, 김영만, 한승수, 전용석, 임승표 사역장로, 이성주, 김요한 은퇴 협동장로, 김대복, 한경수, 이선관, 임승호, 라철삼, 전장근, 차귀동, 배영하, 마사웅, 김범수, 김

광찬집사 그리고 심지어 임동선 목사님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이 공갈, 협박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ORIENTAL MISSION CHURCH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PHONE: (323) 466-1234, FAX: (323)466-0816

www.omc.org

July 14, 2010

Attn: Mr. ~~Choi Sam Pa~~

~~30077 Wilshire Blvd, #2107~~

Los Angeles, CA ~~9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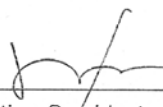
Dear Mr. ~~Choi Sam Pa~~(~~최삼배~~ 귀하),

We'd like to inform you that you are not allowed to come to the church on the Sunday of July 25, 2010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session, who has the authority to govern the church not only from the court, but also from the Church Articles(본 교회의 당회는 법정 판결문과 헌법이 위임하는 당회의 권한에 따라 귀하가 2010년 7월 25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f you come to the church on the above mentioned Sunday, you will be arrested and we will hand you over to the police. Please do not stay in the church properties as well as the church parking lots on July 25, 2010(만약 귀하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일날에 교회에 오시게 되면, 귀하는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될 것입니다. 2010년 7월 25일에 교회의 모든 파킹장 뿐만 아니라 건물내에 있지 마십시오.)

Thank you for your kind cooperation in this matter!(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Sincerely yours(배상),


James Park/Acting President of the Session(박 제임스/임시 당회장)

경찰이 출입금지 못하도록 조치 모두 예배, 총회참석

7월 25일 주일날 박석재 장로 등은 이 공갈,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교회 입장을 시큐리티 가드를 통해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출동한 경찰은 모든 교인들이 동등하게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 3부예배시간부터는 모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편지가 진짜 공갈과 협박을 위한 것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의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공갈 협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의 흥민기 목사 교회 왜 주일날 아닌 평일에 갔나?

현금으로 출장갔는데 왜 교인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

대형부흥집회에 갔다. 2-300명의 저녁집회에 갔다 엇갈려

박석재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지난 7월 25일에 “저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라는 글을 주보사이에 넣어 배포했습니다. 이들 장로들은 이 글에서 “교회 대표자를 서울로 보내어 홍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도 가보았고 그분이 주최하는 부흥회도 참석하여 부흥집회의 분위기와 부흥집회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당회는 청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갔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장로 등 3명이 지난 7월 12일(화요일) 새벽에 떠나 16일(금요일)에 돌아 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그 기간동안이 홍목사를 방문했느냐 아니면 가짜냐는 의문은 다음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문제는 왜 주일날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평일날 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몇명이 참가하는 지 그리고 교인들의 성향을 알아보는 데는 주일이 아니면 안됩니다. 또 하나는 3명이 4박5일이라는 기간동안에 교회돈을 가지고 공식 출장을 간 것인데 갔다와서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일이 18일과 25일 두차례가 있었습니다. 공동총회날 보고했어도 됐을텐데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사나 정부기관 어느곳이든 출장을 갔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중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 문서는 또 “부흥집회에 참석,.....뜨거워지는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장로들의 얘기에 따르면 “부흥회가 열리는 대치동 교회에 갔었다”고 설명하면서 “밤에배여서 참석자들은 남자들은 거의 없었고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참석자들은 2-3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2-300명이 참석했다면 그것은 부흥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흥집회에 참석,.....뜨거워지는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는 표현은 거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영송장로가 말한 1만 7-8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집회 운운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쓰면서 서로 짠 것인데 맞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홍민기목사, 동양선교교회 안간다. 서울의 국민일보보도

서울의 국민일보 자매지인 인터넷 판 “미션라이프”는 홍목사가 OMC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홍민기목사가 미국 LA의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목사와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곽수광(코스타 국제본부 상임대표)목사는 2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홍목사는 동양선교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곽목사는 “홍목사가 시무하는 함께하는 교회는 내년엔 대안학교를 새로 시작하는 등 홍목사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두달전에 이어 지난주에도 홍목사의 이같은 확고한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보도가 사실이라면 홍목사는 우리가 공동총회를 열기 전에 이미 우리교회로 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박석재를 비롯한 장로들은 헛수고를 한셈입니다.

동양선교교회 수습대책위원회